

치은유두에 발생한 Pyogenic granuloma의 一例 (化膿肉芽腫)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학교실

白承浩·盧文鎬

A CASE REPORT OF GRANULOMA PYOGENICUM

Seung Ho Paik, D.D.S., M.S.D., Ph.D., Moon Ho Nho, D.D.S.

Dept. of Peri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 Abstract «.....

A case of pyogenic granuloma between upper left central Incisor and upper left lateral Incisor was observed in an 18year old Korean male. the characteristics were as follows

- 1) The site of the occurrence was between gum of the upper left central Incisor and that of the lateral Incisor
- 2) It is bright red or purple red and either friable or firm depending upon its duration in the majority of cases it presents surface ulceration and purulent exudation
- 3) Granuloma pyogenicum is similar in clinical and microscopic appearance to the conditioned gingival enlargement seen in pregnancy. Differential diagnosis depends upon the patient's history.

I. 서 론

Granuloma pyogenicum(化膿肉芽腫)은 작은 외상에 대해 악화된 반응이라고 생각되는 증양성 치은비대로서 비특이성 감염에 대한 조직의 반응에 그 유래를 두고 있는데 구강내에 출현빈도가 흔하고 때때로 그 임

상 경로때문에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를 놀라게 하곤 한다.

발생 부위는 입술 혹은 입 어디에나 잘 빈발하며 적절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발하기 때문에 종종 악성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저자들은 상악 좌측 중절치와 상악 측절치 사이의 치은 유두에서 화농성 육아종을 관찰한바 있어 이에 그

육안적 및 조직학적 소견을 보고자 한다.

II. 症 例

환자 : 최○○ 18세 남자

초진 : 1975년 3월 5일

主訴 : 상악 좌측 전치 부위에 치은의 비정상적인
비대

家族歴 및 既往歴 : 부모 형제 모두 건강하고 본환자
는 상악동염을 앓아 하루에 한번씩 “나차론”을 복용하
고 있었다.

구강내 소견 : 구강내 상태는 치아 우식증 없는 비
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지치의 出齦은 아직 없었고 齒齦
는 물론 음식을 잔사의 침착이 많았고 중등도의 치주염
을 나타내고 있었다.

Pyogenic granuloma의 임상적 소견 : 이 병소는 肉
莖性 부착을 하는 불연속의 구형으로 중앙성 조직덩이
인데 그 기간에 따라 담적색내지 주홍색이고 연약하거

나 단단하다. 대부분의 경우 표면피양과 배농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농은 없이 표면에 약간의
피양을 보여 주고 있다.

X-선 소견 : 중등도의 치조골 파괴와 치주인대가 약
간 비대된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측절치 근단의 만
곡을 볼수 있다.

處 置

초진일에는 임상 병리실에 Hematology Test의뢰 다
음날 검사 결과를 보니 특기할 사항이 없어 국소마취후
치은 절제술과 국소적 요인을 제거. 치은 절제술 후 폐
어낸 조직은 조직 검사실에 의뢰.

혈액검사 결과

Hgb 15.2Gm/dl

WBC 6350/mm³

Differential Count

Seg. Nout 60%

Lymph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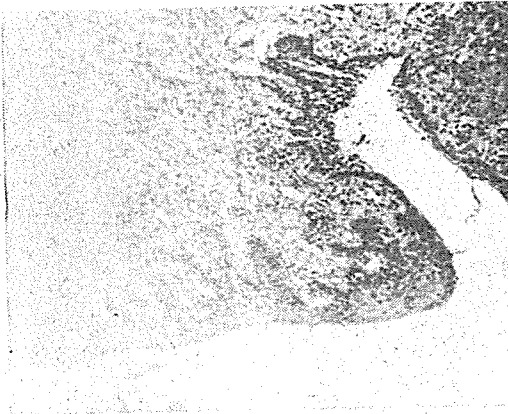
Mono 6%

Bleeding Time 30sec

Coagulation Time 5M

RBC Count 5043/mm³

Platelet Count...162000/m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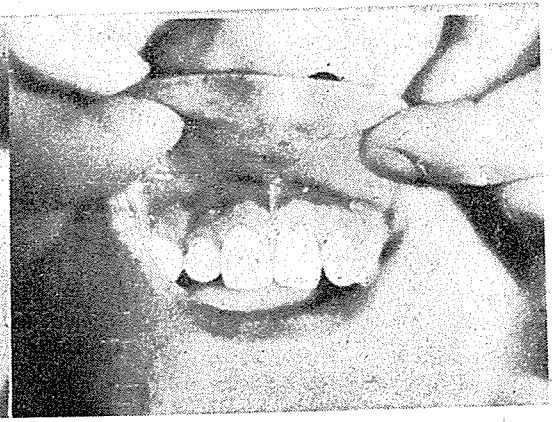
조 직 소 견



절 제 술 전



절제후 1주일



절제후 2주일

III. 總括 및 考按

화농성 육아종은 원래 말에 감염되어 사람에게 전염되는 botryomycotic infection이라고 과거에는 믿고 있었다.

그후의 연구 결과 포도상 구균과 연쇄상 구균에 의한 감염에 기인한다고 암시되었다.

오늘날 화농성 육아종은 조직에 대한 어떤 작은 외상의 결과로써 발생한다고 동의되고 있다.

임상적 특징은 대개 치은에 발생하나 입술 허 협측 점막에서 또한 발견되며 때때로 다른 부위에서도 발생한다.

이것은 용기된 肉莖 모양의 조직군인데 흔히 괴양성이며 돌발적으로 혹은 미약한 외상에 출혈을 나타낸다. 때때로 배농이 있으나 이병소의 암시적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징적 소견이 아니다.

이것은 짙은 자색이나 자홍색이고 통증이 없고 밀도에 있어 비교적 부드럽다. 화농성 육아종은 빨리 발달하여 충분한 크기에 도달되고 나면 오랫동안 그 성장이 정지한채로 있을지도 모른다. 이 병소는 여러 병례에 있어 그 크기가 상당히 달라 2~3mm에서 1cm 혹은 그 이상의 직경을 갖는다.

Kerr氏는 그가 보고한 289병례의 화농성 육아종의 연구에 있어 연령군에 따른 발생빈도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고한바 있다. 그리고 남녀 성별에 있어서의 발생빈도도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Angeeopoulous가 보고한 835병례에서는 이병소의 60%가 11세와 40세 사이의 연령에서 발생했으며 70% 이상이 여성에서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조직학적 소견

수 많은 만성 염증 세포의 침윤을 가진 육아 조직의 군으로서 보이며 내피성 증식과 수 많은 맥관 공간의 형성이 뚜렷한 특징.

포피 상피는 어느 부위에선 수축성이고 또 다른 부위에선 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포면 괴양과 삼출액이 흔히 볼수 있는 특징이다.

IV.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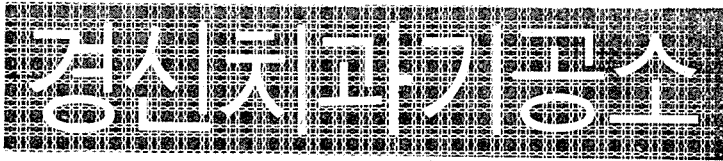
본에는 18세 남성의 상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의 치간 유두에 발견된 화농성 육아종의 예로 그 관찰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의 치간 유두에 위치한 비교적 큰 조직군으로 그 크기는 1.5cm였고

② 색깔은 자홍색이고 조직검사 결과 석회화된 화농성 육아종으로 나타났음.

참 고 문 헌

- 1) A Textbook of Oral Pathology (SHAFER HINE LEVY third edition, 1974.
- 2) Oral Medicine (Burket) Sixth Edition, 1971.
- 3) Clinical Periodontology Third Edition, Glickman, 1964.
- 4) Granuloma Pyogenicum of the Oral Cavity by Angelopoulos Statistical Analysis of its Clinical Features J. Oral Surgery 29 : 840, 1971.
- 5) Kerr, D.A.: Granuloma Pyogenicum Oral Surgery Oral Medicine & Oral Pathology 4 : 158, 1951.
- 6) Lee K.W.: The Fibrous Epulis and Related Lesions Granuloma Pyogenicum & Pregnancy Tumor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317번지
전화 53-5649, 52-3740